

일주문



신행단체 분야별 연수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은 6월 25, 26일 화성 용주사에서 교도소 및 직장 직능 신행단체 분야별 연수를 실시했다.



볼레업 지도자연수회
불교제작리이선협회장 윤광 스님은 7월 2-4일 서울 봉은사에서 불교제작리이선협회 지도자연수를 실시한다. (02)742-7344



공불련 수계법회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송도근 회장 대행은 6월 25-26일 양산 통도사에서 통도사 윤원장 혜남 스님을 법사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교정인연합회 하계수련회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 오희창 회장은 7월 2, 3일 평창 월정사에서 하계수련회를 개최한다. 입제식은 2일 저녁 7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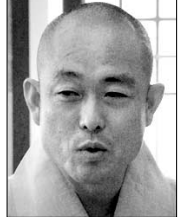


부산불교거사협회 창립기념법회
부산불교거사협회 배호암 회장은 창립 33주년을 맞아 6월 28일 오후 7시 통도사 부산포교원에서 대성 스님 초청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051)816-2241

“불교환경의제21 마무리에 최선을”

조계종 환경위 상임운영위원장 성효 스님

“조계종이 지난 3년여간 추진해 온 불교환경의제21 수립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에 선출된 성효 스님(용인 용덕사 주지·사진)은 최근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 수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평소 환경교육운동에 관심을 쏟아온 스님은 “수행환경 전반을 보호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하고 이를 전 사부대중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효 스님은 “7월에 불교환경의제21 최종안을 검토하고 8월말에 다시 환경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내용을 확정하겠다”며 “늦어도 10월경에는 종교계 사상 처음으로 환경의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내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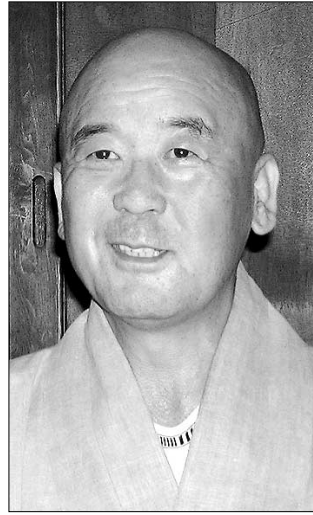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힌 스님은 “환경위원회가 조계종의 환경정책을 인안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자신을 위한 여행 떠나듯 와 보세요”

本社와 ‘자비 명상’ 템플스테이 여는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

“중생이 없으니 내가 앓는다”는 유마거사의 유명한 말이 있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자비의 마음을 이웃과 함께할 때 불국토가 가까워질 것입니다. 많은 가르침과 수행법이 있지만 이번 여름기간은 특히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가슴 깊이 안고 있는 한이나 아픔을 집단상담 방법과 명상으로 직접 느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쓰므로 지금 현재 바로 보게 합니다. ‘지금 현재’야말로 수행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7월 1일부터 10회에 걸쳐 ‘나 너, 우리 함께’라는 주제로 여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여는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사진)은 행사 기획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는 ‘치유’ ‘새 출발’ ‘참회’ ‘가족’ ‘소년소녀가장’ ‘부부’ ‘장애우’ ‘노인’ ‘취업대기 청년’ 등 모두 10차에 걸쳐 매주 2박3일씩 진행될 예정이다. ‘치유’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 ‘새 출발’은 이혼경험자들, ‘참회’는 낙태나 유산 등의 슬픔을 지닌 사람들, ‘가족’은 가족해체풍토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화목을 위해, ‘부부’는 배우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기 위해, ‘소년소녀가장’과 장애인가정, 고령화사회에서 노인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그리고 취업난이 심한 요즘 청년취업대기자들을 위해 열리는 것.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이 진행하고 매 회 전문가들이 동점하며 ‘자기긍정명상’ ‘가치관 경매’ ‘공동체놀이’ ‘편지쓰기’ 등, 각 주제에 따른 독특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된다.

“절에 오는 사람들의 환경같은 마음은 힘들고 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싶어서일 겁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거둔다는 인연의 법칙을 믿고 주인공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아픔에 매몰돼 자신을 확대하고 절 망할 것이 아니라, 이번 템플스테이를 계기로 한번 가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지구에서의 삶을 멋지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템플스테이는 프랑스인론에 집중소개되는 등 국내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실시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 마곡사 템플스테이의 특

‘나·너·우리함께’ 큰 주제 아래 10회 동안 테마별 프로그램 진행

경작한 보리 팔아 금강대에 장학금

금강대 시설과장 인산 스님



“주경야식(晝耕夜禪)이 몸에 배어서인지 노는 땅을 그냥 볼 수 없었죠. 학교에서 얻은 소득이나 학교를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할 작정입니다.”
천태종 인산 스님(사진)이 순수 경작한 보리를 팔아 금강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6월 18일 실시한 상월농법 보리수매에서 인산 스님은 kg당 4200원씩,

총 3600kg을 팔아 약 15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학교가 농사를 지었다는 말에 의해서 해 하면서 반신반의하던 면사무소와 농협직원들도 이 지역에서 금강대가 단위면적당 가장 높은 수확량을 기록했다며 놀라워했다. 금강대 시설과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인산 스님이 교내 땅 3000여평에 보리를 파종한 것은 지난해 10월. 금강대는 학교가 커질 것을 대비해 주변에 넉넉한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재학생들이 적어 유휴부지가 많은 편이다.

겸게 그을린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띤 인산 스님은 “남들보다 늦은 시기에 고랑도 내지 않고 직파해 과연 수확이 될까하는 염려도 없지 않았다”면서도, “매일 아침 몇몇 학인스님들과 함께한 기도 덕분인지 보리가 속속 자라 주변 보리밭보다 2배가 넘는 수확이 나왔다”며 흡족해 했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지역 사찰 100% 회원 가입을 목표로...

대전사람련 새 회장 운봉 스님



대전사람련협회 제18대 회장에 운봉 스님(운봉암 주지·사진)이 선출됐다. 전임 회장 만다 스님의 유고로 6월 15일 회의를 연 대전사람련은 전형위원 5인의 추대를 받아 운봉 스님을 새 회장으로 전격 선출했다.

대전지역에 위치한 절들은 공원부지 안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불사하기도 힘들고 법당 보수공사를 하는 것에도 제약이 큼니다. 회원 절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힘이 되어 주고 싶은 것이 회장으로 제일 하고 싶은 일입니다.”
운봉 스님은 대전지역 사람들이 단합해 같이 발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사람련 소속 사찰은 280여 개, 정회원 사찰은 220개이다. 대전 지역 사찰이 500여 개 된다는 스님은 “지역 사찰 모두를 회원 사찰로 만드는 것이 임기 중에 이루고자 하는 또 하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대전사람련 새 회장 운봉 스님

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일봉 서경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제



(재)일봉선교종(총무원장 동봉)은 6월 15일 의령 일봉사에서 일봉 서경보 스님 열반 9주기 추모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동봉, 재단이사장 경원, 일봉사 주지 해운, 일봉문도회장 도기, 일봉종자유지보존협의회 공동의장 봉해, 학암 스님 등과 허남수 부산시장 등 2500여 명이 동참했다.

일산노인복지관 깨끗한 거리 캠페인



경기도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노인) 취업알선센터는 6월 18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센터 어르신 60명과 인근 호곡중학교 학생 16명이 함께하는 ‘깨끗한 거리 만들기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선도’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서는 쓰레기 문제와 청소년 유해환경 문제가 함께 제시됐다.

한국불교기자협회 정기연수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여태동)는 6월 18-19일 평창 월정사와 양양 낙산사에서 상반기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에는 현대불교신문 등 6개 회원사 회원과 가족 34명이 참석했다. 낙산사에서 열린 입제식을 시작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낙산사 관람,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수신토종오가피 禮獻 24년의 기다림!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24년을 기다려 왔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 예헌에는 저희가 준비한 또 하나의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문의 및 무료자료 신청 02-968-0005

우암산 일봉스님 수상집 피안으로 떠나는 여행 작은 스님의 큰 범문 일봉스님 저/진국관/값 7,000원